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2. 27.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무관 백정호, 주무관 김관식 • ☎ (044) 201-3539, 3546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정부는 건설현장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(한국경제 등, 2.27) >

◆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...공기 늦어지면 '배상금' 물어야

-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 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

□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**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** 위해 「**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***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, 협회 등을 통해 현장에 배포토록 하였습니다.

* 1판 2.11, 2판 2.13, 3판 2.24, 2.26 등 4회 배포, 주요 내용은 대응체계 구축, 예방수칙, 사후관리, 현장 주체별 역할 등 포함

- 산하 발주기관, 협회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□ 또한,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,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,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침*을 배포하고, 각 발주기관에도 건설업체의 요구 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.

*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(CV)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」(기재부, 2.12), 「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」(국토부, 2.13)

- 일시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예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 조정,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 업체,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(2.26).

- 앞으로도 발주기관, 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확산방지 및 건설사업자의 경영해소 애로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백정호 사무관(☎ 044-201-353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